**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으로 문안 드립니다.

동역자님들께 기도제목으로 나누었던 3월 하순에 AZ국 지체들이 방문하여 1주일의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20살 이었던 V자매는 44살이되었고, 10살 이었던 S자매는 34살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들이 4살입니다. 이번에 주께서 V자매의 삶에 간섭하셔서 영을 만지시고, 남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믿고 예수께로 돌이키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출발하는 아침에 공항에 남동생이 자동차로 태워 주기로 해서 자매를 데리려 오다가 앞 차를 피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에 부딪혀 에어백이 다 터지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지만 남동생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SNS로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V자매는 삶과 죽음의 순간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과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남동생 가정의(딸1, 아들1) 돌이킴을 권면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에 AZ국 방문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역자님들께도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 사람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엔은 임신 2개월이며, 에이치 부인은 외손자 보면서 딸들 뒷바라지에 여전하고, 유 부인은 한식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는 호텔 제과부에서 실습 중이라 가끔 만나고, 이 부인은 겨울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가 회복되었고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 수술을 받게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생명을 얻으리라)” 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AZ국 방문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 기도 부탁과 함께 기쁨으로 3년 만의 방문을 준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동역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와 재정으로 섬김을 익월 재정 후원으로 확인하면서 오랜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편지로 드립니다. 세상은 “……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눅18:8)는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갈라디아의 땅끝에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과 믿음의 한걸음으로 사는 하루의 삶을 나눕니다.

2018년 4월 28일 김에스더 드림